서울 문화 소식

도심 속 친환경 공간서 생태 배우다

영등포구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개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800종이 넘는 표본과 살아있는 생태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곤충 표본 만들기 체험학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은 올해 특별히 전문가가 매달 절기(계절)에 맞는 실제 생태물을 가지고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이달의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미래의 보물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시식체험' 등을 새롭게 마련해 학습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을 적극 개선, 가독성을 높이는 메뉴구성과 컨텐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홈페이지 개편도 최근 완료해 온라인으로 사전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 오는 6월 19일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상반기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을 운영에 나섰다.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서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학습의 재미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곤충 디오라마란 곤충 사체 및 표본 등을 이용해 날아다니는 현상이나 그 외 어떤 동작 등을 연출해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구는 학생 및 주민들의 재능개발과 곤충에 대한 흥미유발로 자연스레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체험학습 참여는 본인이 제작한 곤충 디오라마의 윗면과 전면, 후면과 양측면 총 5장의 사진 및 작품 설명을 오는 6월 4일까지 영등포구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www.bugs.ydp.go.kr)의 표본대회 참여 코너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작품은 곤충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예선을 거쳐 총 16개의 작품을 선발하게 되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6월 19일까지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돼 방문객들의 스티커 투표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상 14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당선작은 참가자들의 실명을 기재해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의 전시물로 활용되며, 6월 20일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인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한 작품을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최종 당선작 선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평가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각자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곤충체험학습장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구 기자 khg@

국제사회 공헌하고 자긍심도 고취

서울교육청, 베트남 현지서 봉사활동 연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기관 및 교육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 동안 베트남에서 소속 지방공무원 22명이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도서·기부 물품 기증 등의 봉사활동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연수단(단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소속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미장·도색, 수화통역 등 재능기부가 가능한 지방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봉사활동연수는 지방공무원 개인이 보유한 재능을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상상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 복지시설 'Mai am May Bon Phuong 센터'의 페인트 도색, 환경 정리 등 시설개선활동 ▲호찌민 'Nguyen Van To 중학교' 심폐소생술 전달교육 및 교구 기증 ▲KOCUN(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베트남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에 도서 750권 기증 ▲'호찌민 한국어교육원' 한복 전달 등이며 도움이 필요한 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맞춤형 봉사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도서, 한복 등 기부 물품은 교육청 모든 직원이 지난 2개월간 매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물품 기증의 날'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안쓰는 물건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기부받아 준비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고아 등 약 50명이 생활하는 'Mai am May Bon Phuong 센터'에는 시설개선활동과 더불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입할 수 없었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봉사단원들이 자발적 성금을 모아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봉사활동에 앞서 11일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봉사단 전원에게 실시해 베트남 현지 전달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으며, 18일 베트남 현지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각종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교육 및 봉사활동연수단의 발대식을 실시해 봉사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안전사고 없는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공존'과 '상생'을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의 기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세계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계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예술교육은 키즈살롱에서

광진구 (재)광진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재)광진문화재단(사장 김용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 감각 개발을 위한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키즈살롱(이하 키즈살롱)'을 운영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함양과 또래·가족간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키즈살롱은 인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해마다 다채로운 테마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예술 장르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예술 분야의 흐름과 핵심 요소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감각을 키울수 있음은 물론 창의적인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키즈살롱은 ▲예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를 눈과 귀로 배우는 이론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 ▲마음으로 통하는 공연 및 전시 관람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최신 공연예술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 예술'과 '움직임 예술'이라는 두 가지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미지 예술 시간에는 영상, 사진, 캘리그라피 등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다루어보며, 움직임 예술시간에서는 연극과 무용 장르를 중심으로 소리, 몸짓, 공간, 언어, 감정, 상호관계 등을 이해하고 상상하며 표현하는 커리큘럼이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1기 이미지예술(5월 13일~6월 3일), 2기 움직임예술(7월 1일~7월 22일), 3기 이미지예술(9월 2일~9월 23일), 4기 움직임예술(11월 4일~11월 25일)이다. 프로그램은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5시 2개 반으로 운영되며,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자양동 소재 나루아트센터 창작공간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상세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는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www.naru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문화재단 공연사업팀(☎2049-4700)으로 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들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 강감찬 전시관 본격 개관

고려시대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끌고 고려를 재침략했다. 강감찬은 최고사령관인 상원수(上元帥)로서 20만 명을 이끌고 흥화진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어 그 뒤로 쫓겨가는 적을 귀주에서 궤멸시켰다. 우리가 잘 아는 '귀주대첩'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5월 31일, 강감찬전시관(낙성대로 77)을 본격 개관한다. 강감찬전시관은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장군의 넋을 기리는 안국사 입구에 위치하며 규모 125㎡다. 기존의 낙성대공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지난 3월 10일부터 약 두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마침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별의 탄생 ▲별빛의 영웅 ▲별이 비춘 세상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실과 다목적실로 구성, 강감찬 장군의 탄생설화부터 유적, 전투, 사서와 신화 등 강감찬 장군과 당시 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전시관 곳곳에는 거란의 1·2차 침입영상과 흥화진 전투, 그리고 남풍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귀주대첩'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트릭아트 벽화를 이용한 포토존도 만나볼 수 있다.

다목적실에는 영상실과 체험학습실이 마련됐다. 영상실에서는 자체 제작한 강감찬 장군에 관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고려의 인쇄술, 건축, 불탑 등 총 7개 교육영상컨텐츠가 상시 상영된다. 체험학습실에서는 매수수·목요일, 고려청자 상감기법 체험하기·낙성대 삼층석탑 에코백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와 연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획전과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감찬 10리길 투어코스 프로그램'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주말은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무료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시해설과 체험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과(☎879-5618)로 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강감찬 전시관이 '강감찬 도시, 역사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강감찬 카페, 생가터 정비, 광장 활성화, 고려박물관 등 공간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고려와 관악에 대한 역사를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